大 韓 工 業 敎 育 學 會 誌
第 41卷 第 1號 pp. 44-67

공업계 고등학생들의 회복탄력성, 전공만족도, 취업준비도간의 구조적 관계

이명훈*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공업계 고등학생들의 회복탄력성, 전공만족도, 취업준비도간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대상은 공업계 고등학생이며, 440명의 공업계 고등학생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도구로는 설문지를 활용하였으며, 회수된 409부 중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391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공업계 고등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은 높았으며, 영역별로는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이 가장 높았으며, 감정조절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그리고 공업계 고등학생들의 일반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 마이스터고 학생이 특성화고 학생보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교과성적이 높은 학생이 회복탄력성이 더 높았다.

둘째, 공업계 고등학생들의 전공만족도는 보통이었으며, 영역별로는 전공 전망이 가장 높았으며, 사회차원 만족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그리고 공업계 마이스터고 학생이 특성화고 학생보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교과성적이 높은 학생이 전공만족도가 더 높았다.

셋째, 공업계 고등학생들의 취업준비도는 보통이었으며, 하위 영역 중 취업태도가 매우 높았으며, 직무수행능력과 취업정보는 보통이었다. 그리고 공업계 마이스터고 학생이 특성화고 학생보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교과성적이 높은 학생이 취업준비도가 더 높았다.

넷째, 공업계 고등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은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취업준비도에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전공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취업준비도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다중집단분석을 통하여 공업계 고등학생들의 회복탄력성과 전공만족도, 취업준비도의 관계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모두에 적용되는 모형임이 확인되었다.

주제어 : 회복탄력성, 전공만족도, 취업준비도

이 연구는 2015년도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이명훈(bluesky@cnu.ac.kr) 충남대학교 사범대학 기술교육과 교수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공업계 고등학생들은 마이스터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특정 공업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졸업 후 취업, 또는 진학을 하게 된다. 한 때, 공업계 고등학생들의 진학이 취업을 앞지르던 시절도 있었으나 현재는 공업계고의 본연의 주 목적인 취업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2015년 2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취업률 46.6%, 진학률 36.6%, 교육부, 2015). 따라서 최근 공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산업 현장실무 중심의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기반 교육과정의 개발 및 도입 등 학생들의 실무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만약 공업계 고등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졸업을 하게 된다면 산업 현장에 투입되자마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이는 개인뿐 아니라 산업, 경제, 사회적으로도 손실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공업계 고등학생들의 취업준비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취업준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취업준비에 관한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학생들의 취업준비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으로는 전공만족도와 회복탄력성을 들 수 있는데,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는 진로탐색행동(허균, 2013)과 취업준비행동(한예정, 2014)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전공만족도와 취업준비도 사이에는 깊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김윤혜, 2015; 서미경, 2015), 진로성숙도(신혜정, 2014), 진로결정(박인영, 2015)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심각한 삶의 도전에 직면하고서도 다시 일어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더욱 풍부해지는 인간의 능력으로(한국심리학회, 2014), 진로준비도(양혜주, 여인성, 원도연, 2013; 이진원, 2014)뿐 아니라 전공만족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미라, 2014)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취업준비도는 학생들의 회복탄력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공업계 고등학생들의 취업준비도는 회복탄력성과 전공만족도와 긴밀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나 지금까지 이들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공업계 고등학생들의 취업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회복탄력성과 전공만족도를 선정하고, 이들간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공업계 고등학생들의 취업준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과 생활지도 자료를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공업계 고등학생들의 회복탄력성, 전공만족도, 취업준비도간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공업계 고등학생들의 회복탄력성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둘째, 공업계 고등학생들의 전공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셋째, 공업계 고등학생들의 취업준비도는 어느 정도인가?

넷째, 공업계 고등학생들의 회복탄력성, 전공만족도, 취업준비도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그 환경을 스스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는 인간의 총체적 능력이다(김주환, 2011). 회복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경직되고 고집을 부리거나 혼란스러워하거나 산만해져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Block & Kremen, 1996), 자신의 실수나 역경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매우 높다(김주환, 2011). 반면에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스스로 민감하게 알아차리며, 설령 실수를 하더라도 그로부터 피드백을 적극 받아들이는 습관이 들어 있다(김주환, 2011).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회복탄력성 정도는 보통정도이며(오세령, 2014; 장숙희, 2014; 전정숙, 2015 등),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으며(이진원, 2014; 이한준, 2014), 일반고 학생들이 특성화고 학생들보다 높지만(이병임, 2014), 학생 성별(성동제, 2015; 이진원, 2014; 이한준, 2014), 가정의 경제수준(이진원, 2014), 학교 소재지(이진원, 2014)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회복탄력성은 개인의 꾸준한 노력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며(김주환, 2011), 상담이나 증진 훈련 등(오은숙, 최중진, 2014; 이용주, 장정주, 정봉교, 2012)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은 많은 변인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김윤혜, 2015; 서미경, 2015; 이찬주, 주영아, 2014; 전정숙, 2015), 자기조절능력(이현경, 2012), 대인관계(장숙희, 2014)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살 생각은 낮게 나타났다(여지영, 박태영, 2013).

한편, 회복탄력성은 진로성숙도(신혜정, 2014)와 진로결정(박인영, 2015)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학생의 진로확신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신혜정, 2014), 회복탄력성은 진로준비도(양혜주, 여인성, 원도연, 2013; 이진원, 2014; 장이슬, 2015)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성동제, 2015)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업계 고등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은 학생들의 주요 진로인 취업에 대한 준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대학생을 대상으로 Oshio 등(2002)의 회복탄력성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한 연구(이미라, 2014)에 따르면 탄력성과 전공만족도는 상관관계가 있으며, 자아탄력성이 무용전공학생들의 무용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조희진, 2013), 공업계 고등학생들의 회복탄력성도 학생들의 전공만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2. 전공만족

전공이란 어떤 지식이나 기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이론적 부분과 더불어 실질적 부분을 통합적,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연구하는 학문분야를 의미한다(전현경, 2002). 그리고 전공만족이란 자신이 속한 전공 내에서 개인적 특성과 전공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전공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 등 감정적, 인지적 측면을 포함한 개념을 의미한다(한예정, 2014).

특성화고 학생들의 전공만족정도는 보통이었으며(서민화, 2011; 신다혜, 2013), 예술고 학생이나 체육고 학생보다 낮게 나타났으며(서민화, 2011), 학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맑음, 2013).

특성화고 학생들의 전공만족은 진로의식과 상관이 높으며(유맑음, 2013), 진로탐색행동(허균, 2013)과 진로결정상태(노정희, 최진영, 장지영, 2015)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따르면 전공만족은 취업 스트레스(김치성, 2012; 이미라, 2014; 이진수, 2014), 우울(변은경, 박성희, 2014)과 부적(-) 상관이 있으며, 취업준비행동(한예정, 2014)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공업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전공만족은 학생들의 취업준비와 상관이 있으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3. 취업준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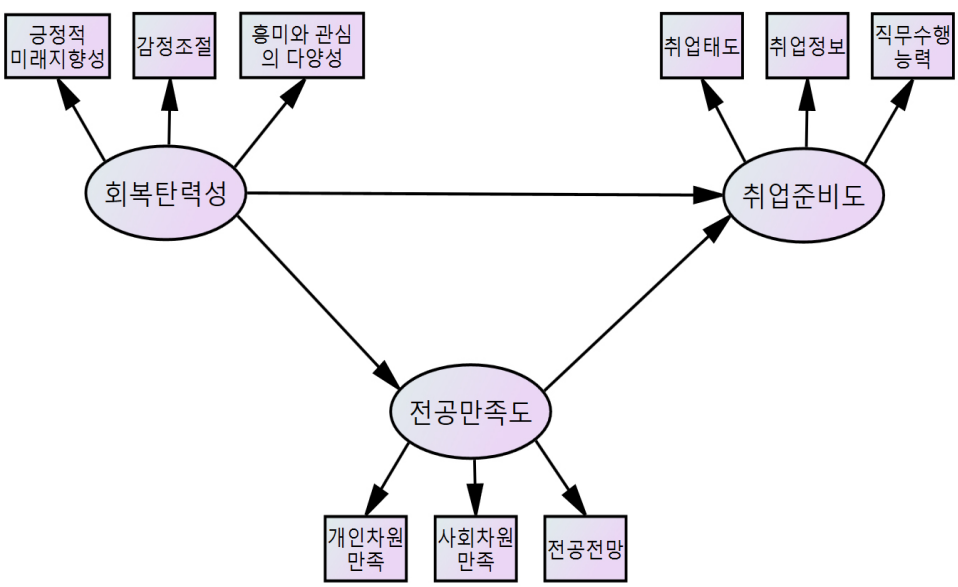
취업준비도란 취업을 위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취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취업준비행위도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즉, 많은 선행연구(고완숙, 2015; 이제경, 2004, 정민주, 2014, 한국고용정보원, 2009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취업준비행위도가 취업준비를 위해 어떤 경험을 어느 정도 해봤느냐, 또는 노력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를 알아보는 것이라면, 취업준비도는 취업을 위해 현재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었느냐를 알아보는 것이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특성으로는 특성화고 입학 동기, 취업시 사회적 대우에 대한 인식, 구직효능감, 장기적인 아르바이트 경험 등이었다(조규형, 2014). 그리고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준비를 위한 정보수집활동, 필요 도구 구비 활동, 실천적 노력은 보통 수준이었으며(고영란, 2015),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장벽 수준은 보통 수준이며, 진로에 대한 미결정이 취업장벽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이지혜, 정철영, 2010)

Ⅲ. 연구의 방법

1. 연구 모형

이 연구는 공업계 고등학생들의 회복탄력성과 전공만족도 및 취업준비도간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는 것이다.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업계 고등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은 전공만족도와 취업준비도에 영향을 주며, 전공만족도는 취업준비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연구 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즉, 공업계 고등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을 독립변인으로, 취업준비도를 종속변인으로, 전공만족도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2.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모집단은 전국의 특성화 고등학교와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공업계 학과에 재학중인 2학년 학생들이다. 따라서 연구 대상으로 440명의 공업계 2학년 학생들(마이스터고 5개교의 220명, 특성화고 5개교의 220명)을 임의로 선정하였다.

3. 조사 도구

조사 도구는 <표 1>과 같이 회복탄력성 척도, 전공만족도 척도, 취업준비도 척도 등 3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응답형식은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묻는 2문항(성별, 교과성적)을 추가하였으며, 학교유형(마이스터고/특성화고)은 설문항목에 넣지 않고, 조사과정에서 회수용봉투의 학교명을 확인함으로써 조사하였다. 그리고 교육경력 10년 이상이며, 석사학위 이상인 3명의 공업교육 전문가에게 조사 도구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검토 받았다.

<표 1> 조사 도구 구성

영역		문항수	Cronbach의 α
회복탄력성	긍정적 미래지향성	5	0.878
	감정조절	5	0.824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5	0.862
전공만족도	개인차원 만족	5	0.927
	사회차원 만족	2	0.808
	전공 전망	2	0.719
취업준비도	취업태도	3	0.634
	취업정보	5	0.844
	직무수행능력	6	0.920
계		38	

가. 회복탄력성 척도

본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Oshio 등(2003)이 개발하고, 정은옥(2006)이 번안한 회복탄력성 척도를 고등학생들에게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인타당도 확보를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으며, 3개의 요인이 전체 변량의 64.63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그리고 척도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Cronbach α 계수를 확인하였으며, 0.824~0.878로 신뢰도가 양호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2> 회복탄력성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긍정적 미래지향성	Q I-03	**.836**	.229	.158
	Q I-01	**.825**	.141	.169
	Q I-04	**.779**	.124	.240
	Q I-02	**.754**	.192	.134
	Q I-05	**.702**	.203	.213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Q I-12	.113	**.855**	.091
	Q I-11	.184	**.804**	.034
	Q I-14	.176	**.797**	.152
	Q I-13	.184	**.796**	.174
	Q I-15	.286	**.560**	.329
감정조절	Q I-07	.186	.184	**.808**
	Q I-09	.157	.117	**.770**
	Q I-06	.130	.019	**.751**
	Q I-10	.239	.135	**.697**
	Q I-08	.128	.162	**.666**
고유치		3.391	3.219	3.085
설명변량(%)		22.605	21.462	20.565
누적변량(%)		22.605	44.067	64.632

나. 전공만족도 척도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김병진(2008), 이미라(2014)의 전공만족도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인타당도 확보를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으며, 3개의 요인이 전체 변량의 79.47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그리고 척도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Cronbach α 계수를 확인하였으며, 0.719~0.927로 신뢰도가 양호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3> 전공만족도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개인차원 만족	Q II-03	**.904**	.132	.146
	Q II-01	**.891**	.154	.100
	Q II-02	**.888**	.052	.236
	Q II-04	**.832**	.127	.182
	Q II-05	**.767**	.156	.178
사회차원 만족	Q II-07	.163	**.862**	.268
	Q II-08	.127	**.857**	.289
전공 전망	Q II-09	.211	.290	**.829**
	Q II-06	.255	.360	**.742**
고유치		3.832	1.776	1.545
설명변량(%)		42.578	19.728	17.172
누적변량(%)		42.578	62.306	79.478

다. 취업준비도 척도

취업준비도 척도는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연구자가 직접 개발하였다.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인타당도 확보를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으며, 3개의 요인이 전체 변량의 66.59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그리고 척도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Cronbach α 계수를 확인하였으며, 0.634~0.920으로 신뢰도가 양호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4> 취업준비도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직무수행능력	Q III-12	**.876**	.216	.043
	Q III-11	**.867**	.204	.068
	Q III-10	**.856**	.169	.096
	Q III-13	**.755**	.203	.165
	Q III-09	**.746**	.202	.234
	Q III-14	**.724**	.317	.117
취업정보	Q III-06	.175	**.845**	.117
	Q III-05	.150	**.819**	.191
	Q III-07	.215	**.813**	.063
	Q III-04	.237	**.723**	-.057
	Q III-08	.359	**.539**	-.062
취업태도	Q III-02	.073	.156	**.778**
	Q III-03	.232	.003	**.751**
	Q III-01	.065	.002	**.740**
고유치		4.251	3.182	1.890
설명변량(%)		30.364	22.731	13.497
누적변량(%)		30.364	53.095	66.593

4.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우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기간은 2015년 8월 20일부터 9월 2일까지 이었다. 10명의 학교별 협력교사에게 사전에 협조를 구하고, 설문방법 안내서, 반송용 봉투와 함께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발송한 440부의 설문지 중 409부(회수율 93.0%)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8부를 제외한 391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응답자의 일반 특성은 <표 5>와 같다. 학교유형은 마이스터고 학생이 49.6%(194명), 특성화고 학생이 50.4%(197명)이었으며, 남학생이 80.6%(315명), 여학생이 19.4%(76명)이었다. 교과성적이 상인 학생이 25.3%(99명), 중인 학생이 53.2%(208명), 하인 학생이 21.5%(84명)이었다.

<표 5> 응답자의 일반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학교유형	마이스터고	194	49.6
	특성화고	197	50.4
성별	남학생	315	80.6
	여학생	76	19.4
교과성적	상	99	25.3
	중	208	53.2
	하	84	21.5
전체		391	100

5. 자료 분석

이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2 프로그램과 Amos 22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통계처리에 있어 유의수준은 5%(α=0.05)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 분석 내용별 통계 분석 방법은 <표 6>과 같다. 공업계 고등학생의 회복탄력성정도, 전공만족도, 취업준비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술통계치 분석, t검정, F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공업계 고등학생의 회복탄력성정도, 전공만족도, 취업준비도간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치(왜도, 첨도)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뒤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이용하여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표 7>의 모형의 적합도 판단 기준에 기반하여 적합성을 분석하였으며, 매개효과의 크기와 유의도 분석을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학교유형별 잠재변인간 경로계수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 자료 분석 내용별 통계 분석 방법

자료 분석 내용	통계 분석 방법
· 공업계 고등학생의 회복탄력성정도	· 기술통계치(평균, 표준편차) 분석 · t검정 · F검정
· 공업계 고등학생의 전공만족도	
· 공업계 고등학생의 취업준비도	
· 공업계 고등학생의 회복탄력성, 전공만족도, 취업준비도간의 구조적 관계	· 기술통계치(왜도, 첨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표 7> 모형의 적합도 판단 기준

구분	RMSEA	GFI	AGFI	IFI	TLI	CFI
수치	≤ 0.05~0.08	≥ 0.9	≥ 0.9	≥ 0.9	≥ 0.9	≥ 0.9

출처: 우종필(2012), 허준(2013)

Ⅳ. 연구의 결과

1. 공업계 고등학생의 회복탄력성

공업계 고등학생의 회복탄력성은 <표 8>과 같이 모든 영역의 회복탄력성이 높았으며, 영역별로는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평균, 3.99)이 가장 높았으며, 감정조절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선행연구(오세령, 2014; 장숙희, 2014; 전정숙, 2015 등)에 따르면 일반고 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은 보통수준인데 반해, 공업계 고등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에 관한 회복탄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공업계 고등학생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다양한 것을 알고 싶어 하며, 다양한 경험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볼 수 있다.

<표 8> 공업계 고등학생의 회복탄력성

영역	평균	표준편차
긍정적 미래지향성	3.81	0.795
감정조절	3.80	0.708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3.99	0.706

공업계 고등학생의 일반 특성(학교유형, 성별, 교과성적)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마이스터고 학생이 특성화고 학생보다 긍정적 미래지향성과 감정조절이 더 높았으며(<표 9> 참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 미래지향성, 감정조절,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이 더 높았다(<표 10> 참조). 그리고 교과성적이 높은 학생이 회복탄력성이 더 높았다(<표 11> 참조).

<표 9> 공업계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회복탄력성 차이

영역	학교유형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긍정적 미래지향성	마이스터고	194	3.91	0.774	2.603*
	특성화고	197	3.70	0.804	
감정조절	마이스터고	194	3.89	0.674	2.636**
	특성화고	197	3.71	0.729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마이스터고	194	4.03	0.665	1.102
	특성화고	197	3.95	0.744	

*: $p<0.05$, **: $p<0.01$

이를 통하여 공업계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특성화고 학생들보다 회복탄력성의 긍정적 미래지향성과 감정조절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선행연구(성동제, 2015; 이진원,

2014; 이한준, 2014)에 따르면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는 없었으나 공업계 고등학생들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회복탄력성의 모든 영역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업계 고등학생들의 경우 교과성적이 높은 학생이 회복탄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어, 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이 성적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공업계 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회복탄력성 차이

영역	성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긍정적 미래지향성	남학생	315	3.86	0.762	2.786**
	여학생	76	3.58	0.891	
감정조절	남학생	315	3.88	0.676	4.368***
	여학생	76	3.49	0.752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남학생	315	4.04	0.704	2.844**
	여학생	76	3.80	0.685	

**: p<0.01, ***: p<0.001

<표 11> 공업계 고등학생의 교과성적에 따른 회복탄력성 차이

영역	교과성적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긍정적 미래지향성	상	99	4.18	0.707	23.790***	상>중>하
	중	208	3.79	0.731		
	하	84	3.41	0.849		
감정조절	상	99	3.97	0.659	8.400***	상>하, 중>하
	중	208	3.82	0.703		
	하	84	3.55	0.713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상	99	4.20	0.657	7.042**	상>중, 상>하
	중	208	3.96	0.733		
	하	84	3.83	0.640		

**: p<0.01, ***: p<0.001

2. 공업계 고등학생의 전공만족도

공업계 고등학생의 전공만족도는 <표 12>와 같이 모든 영역의 전공만족도가 보통 수준이며, 전공만족도 영역 중 전공 전망(평균 3.74)이 가장 높았으며, 사회차원 만족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선행연구(서민화, 2011; 신다혜, 2013)에 따르면 특성화고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는 보통이었으며, 공업계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는 보통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공만족도 영역 중 전공 전망에 대한 만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공업계 고등학생의 전공만족도

영역	평균	표준편차
개인차원 만족	3.62	0.979
사회차원 만족	3.41	0.904
전공 전망	3.74	0.870

공업계 고등학생의 일반 특성(학교유형, 성별, 교과성적)에 따른 전공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마이스터고 학생이 특성화고 학생보다 개인차원 만족, 사회차원 만족, 전공 전망이 더 높았으며(<표 13> 참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개인차원 만족과 전공 전망이 더 높았다(<표 14> 참조). 그리고 교과성적이 높은 학생이 전공만족도가 더 높았다(<표 15> 참조).

이를 통하여 공업계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특성화고 학생들보다 전공만족도가 모든 영역에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이명훈, 2007; 이명훈, 조동헌, 2011)에 따르면 마이스터고 학생들(80.2%)이 특성화고 학생들(49.4%)보다 입학 전 희망했던 학과에 입학하여 희망했던 전공을 배우고 있는 비율이 더 높았는데, 이러한 입학 전 자신이 희망했던 전공과 현재 자신의 전공과의 일치 여부가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공업계 고등학생들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전공의 개인차원 만족과 전공 전망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업계 고등학생들의 경우 교과성적이 높은 학생이 전공만족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3> 공업계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전공만족도 차이

영역	학교유형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개인차원 만족	마이스터고	194	3.84	0.889	4.554***
	특성화고	197	3.40	1.017	
사회차원 만족	마이스터고	194	3.62	0.911	4.844***
	특성화고	197	3.19	0.847	
전공 전망	마이스터고	194	3.96	0.797	5.109***
	특성화고	197	3.53	0.887	

***: p<0.001

<표 14> 공업계 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전공만족도 차이

영역	성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개인차원 만족	남학생	315	3.69	0.949	2.935**
	여학생	76	3.33	1.053	
사회차원 만족	남학생	315	3.43	0.922	0.834
	여학생	76	3.33	0.827	
전공 전망	남학생	315	3.84	0.831	4.811***
	여학생	76	3.32	0.908	

**: p<0.01, ***: p<0.001

<표 15> 공업계 고등학생의 교과성적에 따른 전공만족도 차이

영역	교과성적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개인차원 만족	상	99	3.88	0.928	9.973***	상>하, 중>하
	중	208	3.64	0.937		
	하	84	3.25	1.039		
사회차원 만족	상	99	3.56	1.003	3.142*	상>하
	중	208	3.41	0.851		
	하	84	3.23	0.886		
전공 전망	상	99	3.98	0.803	5.297**	상>중, 상>하
	중	208	3.66	0.865		
	하	84	3.65	0.914		

*: p<0.05, **: p<0.01, ***: p<0.001

3. 공업계 고등학생의 취업준비도

공업계 고등학생의 취업준비도는 <표 16>과 같이 취업태도(평균 4.31)가 매우 높았으며, 직무수행능력(평균 3.62)과 취업정보(평균 3.32)는 보통 수준이었다. 이를 통하여 공업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충분한 취업태도를 갖추고 있으며, 직무수행능력은 보통수준이나 취업정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6> 공업계 고등학생의 취업준비도

영역	평균	표준편차
취업태도	4.31	0.676
취업정보	3.32	0.805
직무수행능력	3.62	0.797

공업계 고등학생의 일반 특성(학교유형, 성별, 교과성적)에 따른 취업준비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마이스터고 학생이 특성화고 학생보다 취업정보, 직무수행능력이 더 높았으며(<표 17> 참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취업정보, 직무수행능력이 더 높았다(<표 18> 참조). 그리고 교과성적이 높은 학생이 취업준비도가 더 높았다(<표 19> 참조).

이를 통하여 공업계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특성화고 학생들보다 취업정보와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취업준비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취업태도는 공업계 마이스터고 학생과 특성화고 학생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모두 충분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공업계 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취업정보와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취업준비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업계 고등학생들의 경우 교과성적이 높은 학생이 취업준비도도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7> 공업계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른 취업준비도 차이

영역	학교유형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취업태도	마이스터고	194	4.27	0.719	-1.327
	특성화고	197	4.36	0.630	
취업정보	마이스터고	194	3.54	0.777	5.367***
	특성화고	197	3.11	0.779	
직무수행능력	마이스터고	194	3.78	0.725	4.122***
	특성화고	197	3.46	0.833	

***: p<0.001

<표 18> 공업계 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취업준비도 차이

영역	성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취업태도	남학생	315	4.35	0.643	1.930
	여학생	76	4.18	0.790	
취업정보	남학생	315	3.38	0.773	2.825**
	여학생	76	3.09	0.896	
직무수행능력	남학생	315	3.67	0.803	2.666**
	여학생	76	3.40	0.737	

**: p<0.01

<표 19> 공업계 고등학생의 교과성적에 따른 취업준비도 차이

영역	교과성적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취업태도	상	99	4.44	0.696	5.028**	상>하
	중	208	4.33	0.628		
	하	84	4.13	0.735		
취업정보	상	99	3.58	0.875	8.262***	상>중, 상>하
	중	208	3.29	0.729		
	하	84	3.11	0.832		
직무수행능력	상	99	3.96	0.793	21.117***	상>중>하
	중	208	3.62	0.722		
	하	84	3.23	0.807		

**: p<0.01, ***: p<0.001

4. 공업계 고등학생의 회복탄력성, 전공만족도, 취업준비도간의 구조적 관계

가. 측정변인의 정규성 및 상관관계 분석

측정변인의 정규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측정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왜도는 ±1.965의 범위 내에, 첨도는 ±6의 범위 내에 있으면 정규성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우종필, 2012), 측정변인들의 왜도와 첨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정규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표 20> 참조).

그리고 변인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모든 변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기준 타당성을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표 20> 참조).

<표 20> 측정변인의 왜도, 첨도 및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8	9
회복탄력성	1. 긍정적 미래지향성	1								
	2. 감정조절	.46**	1							
	3.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47**	.39**	1						
전공만족도	4. 개인차원 만족	.44**	.32**	.32**	1					
	5. 사회차원 만족	.33**	.24**	.24**	.35**	1				
	6. 전공 전망	.44**	.32**	.28**	.48**	.65**	1			
취업준비도	7. 취업태도	.24**	.17**	.18**	.28**	.17**	.29**	1		
	8. 취업정보	.57**	.40**	.40**	.45**	.30**	.40**	.17**	1	
	9. 직무수행능력	.55**	.40**	.45**	.66**	.31**	.46**	.29**	.52**	1
왜도		-0.39	-0.09	-0.42	-0.58	-0.07	-0.47	-1.05	-0.17	-0.39
첨도		-0.06	-0.67	-0.33	-0.02	-0.22	-0.21	1.60	0.11	0.39

**: $p<0.01$

나. 측정모형의 검증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타당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1> 참조). 적합도 지수 중 GFI와 AGFI의 경우 적합도 판단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그 차이가 10% 내외라는 점에서 용인될 수 있는 지수이므로(손규태, 2015) 잠재변인이 타당하고 신뢰롭게 측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21> 측정모형의 적합도

구분	RMSEA	GFI	AGFI	IFI	TLI	CFI
측정모형	0.056	0.843	0.815	0.916	0.905	0.915
적합도 판단 기준	≤ 0.05~0.08	≥ 0.9	≥ 0.9	≥ 0.9	≥ 0.9	≥ 0.9

그리고 측정모형의 수렴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부하량을 확인하였다(<표 22> 참조). 이 연구에서는 요인부하량이 0.404~0.815로 사회차원 만족과 취업태도의 요인부하량이 0.5 미만이었으나 0.4를 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므로 수렴 타당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2> 측정변인의 정규성 검사 결과

잠재변인	측정변인	B	β	S.E.	C.R.
회복탄력성	긍정적 미래지향성	1.000	0.794	-	-
	감정조절	0.657	0.586	0.63	10.482***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0.681	0.609	0.63	10.875***
전공만족도	개인차원 만족	1.000	0.796	-	-
	사회차원 만족	0.515	0.444	066	7.835***
	전공 전망	0.698	0.625	0.63	11.092***
취업준비도	취업태도	1.000	0.404	-	-
	취업정보	1.970	0.679	0.276	7.137***
	직무수행능력	2.346	0.815	0.302	7.773***

***: p<0.001

다. 구조모형의 검증

변인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회귀모형을 분석하였는데,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3> 참조).

<표 23> 구조모형의 적합도

구분	RMSEA	GFI	AGFI	IFI	TLI	CFI
구조모형	0.057	0.970	0.942	0.976	0.963	0.976
적합도 판단 기준	≤ 0.05~0.08	≥ 0.9	≥ 0.9	≥ 0.9	≥ 0.9	≥ 0.9

변인간의 영향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모형의 비표준화 계수와 표준화 계수를 산출하였다(<표 24> 참조). 이를 통하여 공업계 고등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은 전공만족도(β=0.745)와 취업준비도(β=0.434)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전공만족도는 취업준비도(β=0.599)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4> 변인간 경로계수

관계	B	β	S.E.	C.R.
회복탄력성 → 전공만족도	0.921	0.745	0.091	10.117***
전공만족도 → 취업준비도	0.213	0.599	0.048	4.430***
회복탄력성 → 취업준비도	0.190	0.434	0.050	3.790***

***: p<0.001

라. 매개효과 검증

연구모형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경로간의 직간접 효과를 분석하였다(<표 25> 참조). 이를 통하여 공업계 고등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은 취업준비도에 직접적인 영향(β=0.434)과 함께 전공만족도를 거쳐서 간접적인 영향(β=0.446)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업계 고등학생들의 전공만족도가 회복탄력성과 취업준비도 사이에서 부분 매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5> 연구모형의 직간접 효과

경로	표준화계수(β)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독립-매개: 회복탄력성 → 전공만족도	0.745***	-	0.745***
매개-종속: 전공만족도 → 취업준비도	0.599***	-	0.599***
독립-종속: 회복탄력성 → 취업준비도	0.434***	0.446***	0.880***

***: p<0.001

마. 학교유형별 다중집단분석

연구모형의 경로가 학교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 동일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집단별(공업계 마이스터고 학생과 특성화고 학생)로 측정 문항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중집단 분석을 할 수 없다. 측정 동일성 검증은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비제약모형과 요인부하량제약모형간의 χ^2값의 차이 검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비제약모형과 모든 요인부하량을 제약한 각 모형의 분석 결과는 <표 26>과 같다. 비제약모형과 완전측정동일형모형 모두 적합도 지수는 적합하였으나 두 모형을 비교한 결과 두 모형의 자유도 차가 6이고, χ^2값의 차가 17.452이므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지 못했다. 따라서 부분측정동일성모형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제약한 요인계수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χ^2값과 적합도 지수를 비제약모형과 비교한 결과, '전공만족도'의 '사회차원'에 대한 제약을 풀고 부분측정동일성을 검증한 결과, χ^2값의 변화량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분측정동일성이 확보되었다.

<표 26> 학교유형에 따른 동일성 검증 적합도 지수

모형	χ^2(df)	NFI	TLI	CFI	RMSEA	$\Delta\chi^2$(Δdf)	검증결과
비제약모형	75.865 (44)	0.939	0.955	0.973	0.043	-	-
완전측정동일성모형 (vs 비제약모형)	93.317 (50)	0.924	0.946	0.963	0.047	17.452 (6)	기각
부분측정동일성모형 (vs 비제약모형)	86.243 (49)	0.930	0.953	0.968	0.044	10.378 (5)	채택
구조동일성 (vs 부분측정동일성모형)	95.563 (54)	0.923	0.952	0.964	0.044	9.320 (5)	채택

부분측정동일성이 검증되었으므로 잠재변인간의 인과 경로에서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적합도 지수는 나빠지기는 하였으나 그 차이가 매우 미미하고(ΔNFI=-0.007, ΔTLI=-0.001, ΔCFI=0.004), χ^2값이 9.320(df=5)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구조동일성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각 개별 경로 중 일부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에(신선아, 2015), 학교유형에 따른 경로계수 추정치를 살펴보고, 두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응 모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모든 경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27> 참조). 즉, 공업계 학교유형(마이스터고, 특성화고) 간에는 모형의 차이가 없으며,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 모형이 학교유형에 상관 없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7> 학교유형에 따른 경로계수의 차이 검증

경로	마이스터고 (표준화계수)	특성화고 (표준화계수)	대응 모수차 검증(z)
회복탄력성 → 전공만족도	0.738***	0.705***	0.103
전공만족도 → 취업준비도	0.597**	0.580**	1.729
회복탄력성 → 취업준비도	0.444**	0.466**	-0.960

**: p<0.01, ***: p<0.001
z값은 절대치가 1.96 이상일 때 유의미함

Ⅴ. 결론 및 제언

첫째, 공업계 고등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은 높았으며, 영역별로는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이 가장 높았으며, 감정조절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그리고 공업계 고등학생들의 일반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 마이스터고 학생이 특성화고 학생보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교과성적이 높은 학생이 회복탄력성이 더 높았다. 공업계 고등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은

전체적으로 높았으나 마이스터고 학생에 비해 특성화고 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교과성적이 높은 학생보다 그렇지 못한 학생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므로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회복탄력성은 학생 때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살아가는데 있어 매우 유익한 특성이므로 이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공업계 고등학생들의 전공만족도는 보통이었으며, 영역별로는 전공 전망이 가장 높았으며, 사회차원 만족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그리고 공업계 마이스터고 학생이 특성화고 학생보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교과성적이 높은 학생이 전공만족도가 더 높았다. 전공에 대한 만족은 취업준비뿐 아니라 진로탐색행동(허균, 2013)과 진로결정상태(노정희, 최진영, 장지영, 2015)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공업계 고등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써 전공을 선택하기 전에 전공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알고 선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는 입학 전에 전공을 선태하게 되며, 입학 후에 전공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 따라서 중학교 단계에서 전공을 선택하기 전에 전공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스스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진로지도를 실시한다면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업계 고등학생들의 취업준비도는 보통이었으며, 하위 영역 중 취업태도가 매우 높았으며, 직무수행능력과 취업정보는 보통이었다. 그리고 공업계 마이스터고 학생이 특성화고 학생보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교과성적이 높은 학생이 취업준비도가 더 높았다. 따라서 취업준비도 중 보통수준인 직무수행능력과 취업정보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취업정보의 향상을 위해 학생들에게 진로지도시 취업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직업에서 요구되는 능력, 직업환경, 발전 가능성 등 취업과 관련된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스스로 취업에 대한 정보를 찾고, 그 유용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줄 필요가 있다. 또한, 공업계 고등학생들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고,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수법 개발 및 적용 등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공업계 고등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은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취업준비도에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전공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취업준비도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공업계 고등학생들의 취업준비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회복탄력성과 전공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중집단분석을 통하여 공업계 고등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이 전공만족도를 부분매개로 하여 취업준비도에 영향을 주는 관계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모두에 적용되는 모형임이 확인되었으며, 학교유형에 따라 구조 모형에 차이가 없었다.

참 고 문 헌

고영란(2015).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 장벽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태도성숙도 및 진로교육만족도의 조절효과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고완숙(2015). **취업준비대학생이 지각한 취업장벽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교육부(2015). **고졸 취업률 6년 연속 상승 - 2015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고졸 취업률 발표**. 교육부.

김병진(2008). **홀랜드식 검사에 의한 직업유형 일치정도와 직무만족 및 직무성취와의 관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김윤혜(2015). **남자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정서지능과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김주환(2011). **회복탄력성.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유쾌한 비밀**. 위즈덤하우스.

김치성(2012). **졸업예정자의 직업가치, 전공만족도, 공인자격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노정희, 최진영, 장지영(2015). 관광 관련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경험한 진로교육, 전공만족도, 진로결정상태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관광학연구**, **39**(7), 123-140.

박인영(2015). **대학생의 부모애착, 성인애착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변은경, 박성희(2014). 전문대학 학생의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1), 323-330.

서미경(2015).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고등학생의 학교적응 간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서민화(2011). **고등학생의 전공 학업성취도 및 전공만족도 상하집단 판별요인 탐색**.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성동제(2015). **위기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과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손규태(2015). **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직무성과와 경력개발지원, 조직몰입, 경력몰입 및 조직시민행동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신다혜(2013). **진로성유형에 따른 특성화고 남학생의 고정관념과 전공만족,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신선아(2015). **청소년의 애착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신혜정(2014). **상업계 특성화고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양혜주, 여인성, 원도연(2013). 무용학과 대학생의 멘토링 관계가 회복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2**(5), 1089-1102.

여지영, 박태영(2013).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 : 회복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0**(8), 121-145.

오세령(201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오은숙, 최중진(2014). 해결중심자기성찰 집단상담이 청소년의 자기성찰과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해결중심학회지**, **1**(1), 53-78.

우종필(2012). **우종필 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한나래아카데미.

유맑음(2013). **특성화고등학교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진로의식**.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이명훈(2007).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 변인. **대한공업교육학회**, **32**(2), 1-22.

이명훈, 조동헌(2011).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 변인. **직업교육연구**, **30**(1), 291-311.

이미라(2014).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및 취업준비스트레스와의 관계**.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이병임(2014). 특성화고와 일반고 학생의 창의적 인성과 회복탄력성의 관계. **창의력교육연구**, **14**(1), 35-48.

이용주, 장정주, 정봉교(2012). 긍정성 증진훈련이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2**(1), 202.

이제경(2004). **한국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 심리적 특성 및 개인배경변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이지혜, 정철영(2010).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장벽과 관련 변인.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2**(1), 25-47.

이진수(2014). 전공 만족도에 따른 대학생 학년별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13-219.

이진원(2014). **고등학생의 회복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이찬주, 주영아(2014). 부모공감 및 회복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아동학대 경험의 조절된 매개효과검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6), 121-145.

이한준(2014). **고등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회복탄력성 및 학업소진의 관계**.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이현경(2012). **지각된 부모의 공감능력이 후기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장숙희(2014). **고등학생의 공감능력과 회복탄력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고등학생의**

공감능력과 회복탄력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장이슬(2015).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전정숙(2015). **고등학생의 회복탄력성과 학업적 실패내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전현경(2002). **학습 양식과 대학 전공과의 상관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정민주(2014). 4년제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의 열등감과 취업불안 및 전공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6**(7), 335-354.

정은옥(2006). **심리적 탄력성 척도의 타당화**.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조규형(2014).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취업결정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조희진(2013). **무용전공학생들의 자아탄력성과 무용만족도 및 무용지속의도 간 구조관계 검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한국고용정보원(2009). **2009 대학생 취업준비도 검사 개발 연구보고서(1차년도)**.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심리학회(2014). **심리학용어사전**. 한국심리학회.

한예정(2014). **대학생들의 전공선택 동기와 직업가치관에 따른 수업참여도와 전공만족도, 취업준비행동과의 영향관계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허균(2013). 수산해양계열 고등학생의 전공만족, 진로탐색 자기효능감 및 진로탐색행동 관계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25**(6), 1306-1314.

허준(2013). **Amos 구조방정식모형**. 한나래아카데미.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Oshio, A. et al. (2003). Construct validity of the adolescent resilience scale. *Psychological report*, *93*, 1217-1222.

◎ 논문접수: 2016. 1. 23/ 1차수정본 접수: 2016. 2. 23/ 게재승인: 2016. 3. 12

<Abstract>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Resilience, Major Satisfaction and Employment Preparation of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Myung-Hun Lee*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measure resilience, major satisfaction and employment preparation of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and to analyz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resilience, major satisfaction and employment preparation of them.

The population was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The study was carried out through questionnaire survey method. The survey questionnaire was sent by mail. A survey questionnaire consists of 38 items. 391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analysis. Both descriptive and inferential statistics were employed for data analysis. And the data was analyzed b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o examine structural relationship.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resilience of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was high. In the domain of resilience, 'diversity of interest' was the highest, and 'emotional management' was the lowest. And resilience of meister high school students was higher than that of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Resilience of male students was higher than that of female students. Second, major satisfaction of them was moderate. In the domain of major satisfaction, 'major prospect' was the highest, and 'satisfaction of societal dimensions' was the lowest. And major satisfaction of meister high school students was higher than that of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Major satisfaction of male students was higher than that of female students. Third, employment preparation of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was moderate. In the domain of employment preparation, 'employment attitude' was the highest, and 'job performance competency' and 'employment information' were moderate. And employment preparation of meister high school students was higher than that of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Employment preparation of male students was higher than that of female students. Forth, resilience of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had a positive effect on employment preparation. Also major satisfaction of them had

a positive direct effect on employment preparation. And the mediating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was significant in pathway from resilience to employment preparation. Lastly, a multi-group analysis by school type revealed that the mediation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did not differ by school type.

Key words: Resilience, Major Satisfaction, Employment Preparation